

#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

**이 응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
인도·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 
wlee@kiep.go.kr

**조충제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
인도·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 
cjcho@kiep.go.kr

**송영철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
인도·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 
ycsong@kiep.go.kr

**최윤정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
인도·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 
yjchoi@kiep.go.kr



## 1. 연구의 배경, 목적, 기대효과

- 1991년 개방으로 시작된 경제개혁 이후 인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, 최근 들어 일련의 FTA를 추진하면서 개방의 폭을 넓혀가고 있음.
  - 현재 명목 GDP는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며 소비가 GDP의 60%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임.
  - 특히 2000년대 들어 인도는 동방정책과 5개년 대외통상정책을 기반으로 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음(2013년 기준 15개의 주요 FTA를 체결하였으며, 17개 국가 및 지역협력체와 FTA 추진을 위한 협상 중임).
- 무역자유화, 규제철폐, 시장중심의 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이 인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그 범위가 포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, 또한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인도 노동시장 기초 정보 제공 및 관련 지원정책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.
  - 우리나라에서 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전무함.
  -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경영애로 요인으로 인프라 부족 다음으로 인사관리 곤란, 노사갈등 및 분규 가능성을 들고 있음(KIEP(2011), 인도 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).
  - 특히 2012년 일본 스즈키 인도 현지공장(인도 최대 규모)에서 발생한 폭동은 노사갈등이 주원인 인바,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현지 노무관계 및 노사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.
- 본 연구는 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및 1991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경제개혁 이후 인도 노동시장의 변화를 연구함.
  - 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무역자유화 및 규제철폐를 포함한 인도정부의 시장 지향적 정책이 인도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성적, 정량적으로 분석함.
  - 이와 함께 경제개혁에 따라 변화된 인도에서의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.
  - 또한 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도 주안점을 두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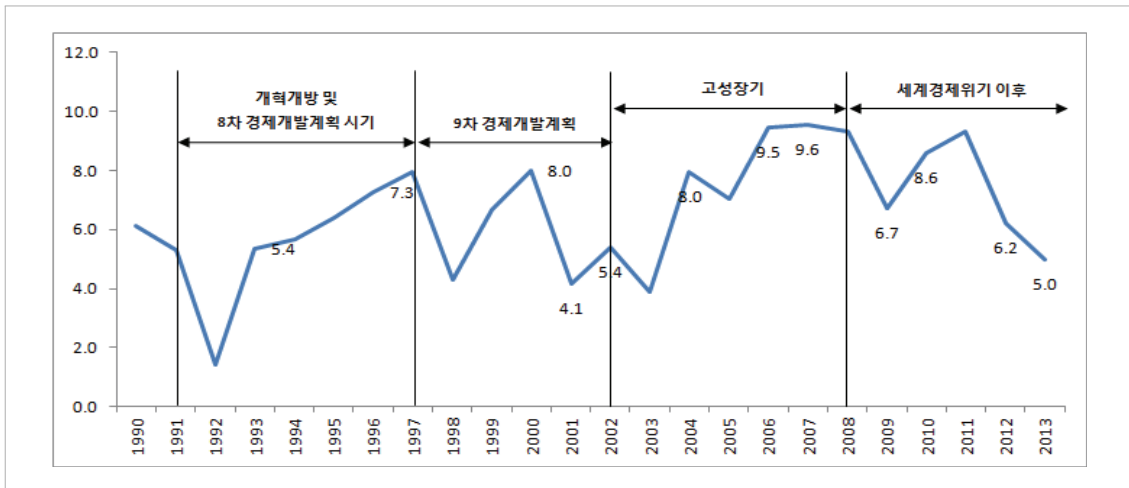
- 본 연구를 통해 인도 노동시장이 경제개혁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현지의 우리 기업들에게 노동시장 통계 및 노사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- 이 실증연구는 정책적 기여 외에도 인도의 경우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매칭함수(matching function)의 추정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 있을 것임.
- 이외에도 인도의 1991년 개혁개방의 시작과 우리의 1997년 이후 경제개혁이 외환위기에 기인한 공통 점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.
  - 양국 모두 IMF 안정화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받았으므로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노동시장 변화는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가치가 있음.

## 2. 연구결과

### 1) 인도의 경제개혁

- 본 연구는 인도 경제개혁 이후의 단계를 ① IMF 안정화 정책의 채택에 따른 외부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(1991년 말에서 1997년까지), ② 국내 기업들 및 산업계 각종의 요구가 반영된 점진적 개혁기(1998~2002년), ③ 인도경제의 고성장기(2003~08년), ④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(2009년 이후)로 나누어 분석함.
  - 경제개혁 이후 경제성장, 교역, 투자, 외환보유고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는데, 주로 2000년대 이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주를 이루었음.
  -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다소 침체하여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 경제개혁이 2000년대 이후 각 부문의 성과로 나타나는 추세를 보임.

[그림 1] 인도 시기별 경제성장률 추이



주: 1) 인도 회계연도(전년 4월~다음 해 3월) 기준임.  
 2) 그림 안의 숫자는 경제성장률임.  
 자료: 인도중앙은행 DB(검색일: 2013. 7. 1).

- 하지만 1991년 이후 노동시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 개혁이 더딘 편임.
  - 노동시장의 경직성과, 임금과 노동생산성과의 격차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당면과제임.

## 2) 인도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

### ① 경제활동참여비율

-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임.
  - 하지만 청년층의 감소세는 꾸준히 진행됐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감소세가 뚜렷함.
  - 여성층의 참여비율은 다소 상승했었으나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.

### ② 고용률

-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.
  -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.

### ③ 실업률

- 인도의 실업률은 개혁개방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세계 경제위기 시기인 2010년에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함.
  -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구직 단념자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시 실업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.
  - 2010년 세계경제위기로 경기침체가 있었음에도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위의 문제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.
  - 고용률의 추세와 비례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았음.
  - 도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됨.

### ④ 고용구조

- 경제개혁 이후 농촌의 고용률은 감소세를,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률은 증가세를 보였음.
  - 이는 경제개혁의 효과라기보다는 인도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변화라 할 수 있음.
  -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고용축소의 결과임.

### ⑤ 고용탄력성

-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의 분석 결과, 인도는 200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였음.
  - 농업과 광업에서만 고용탄력성이 1이상을 나타냈을 뿐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0.12, 0.24에 불과하였음.
  - 이는 인도가 고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크게 발생시키지 못했기 때문임.
  - 또한 인도 경제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노동법 및 관련 제도 역시 유연하지 못해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.

### ⑥ 노동시장 제도

- 인도 노동시장의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.
  -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공식부문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10% 미만이며 친 노동자 성향의 노동법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임.

- 또한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공식부문의 약 3/4을 차지했던 공공부문 고용의 급속한 감소는 고용 없는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.
- 같은 기간 동안 민간부문 고용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를 만회하지 못하였음.

### 3) 인도의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

#### ① 인도 노사관계의 변화

##### ● 인도 노동자 및 노조의 영향력은 고용률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임.

- 고용 증가 시에는 노조, 노사분규, 분규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고용 감소 시에는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.

##### ●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자와 노조의 위상은 약화하는 경향을 보임.

- 특히 친기업 성향의 BJP 정부는 공공부문의 신규고용을 중단하고 명예 퇴직제를 통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조와 노동자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음.
- 2000년대에는 민간부문 주도의 고용증가에 따라 노조와 조합원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노사분규 건수는 감소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##### ● 인도 노조의 위상 약화는 인도의 특수성에도 원인이 있음.

-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목적이 주가 되어 시작되었고 특히 전국단위 노조일수록 정당과 연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노조간 연합이 여의치 않은 노조 분절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.
- 이는 노조간 상호연대가 약함을 의미하며 노조와 조합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위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을 나타냄.
- 인도정부는 경제개혁 이후 친기업적인 노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펼침으로써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음(2001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신규노조의 등록을 까다롭게 하였음).

##### ● 기업의 강경한 대응도 노조위상의 약화에 일조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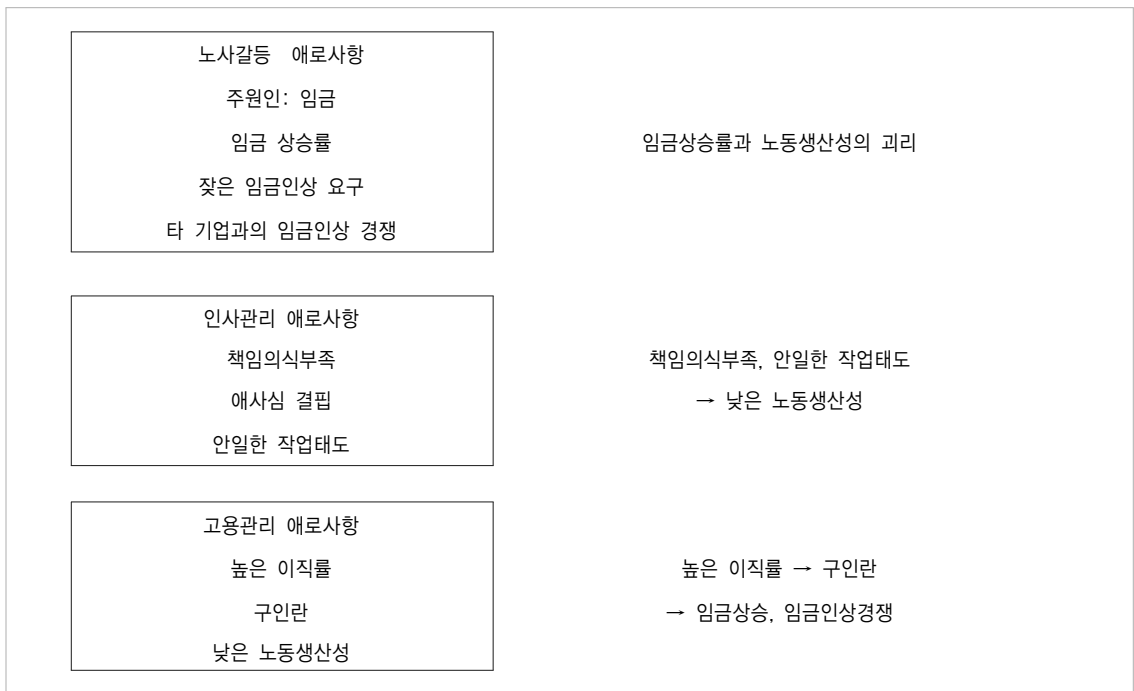
- 최근 들어 노동자의 파업은 줄고 있으나 기업의 직장폐쇄는 파업만큼 줄지 않고 있음.
- 특히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파업의 급감은 노조가 고용주의 직장폐쇄를 우려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임.
- 기업들도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명예퇴직제도와 성과급 시스템, 계약직과 아웃소싱 등이 있음.

## ②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노사관계 및 유의사항

### ●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 보임.

-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는 원만하며 특히 대부분 사업장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음.
- 하지만 임금상승요구와 높은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노사갈등 가능성이 존재함.
- 높은 이직률도 최대 애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.
- 특히 제조 기업은 물론 비제조 기업의 노동생산성 개선의 정도와 임금상승률과의 격차는 매우 크며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.

[그림 2] 인도의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과의 관계



자료: 조총제 외(2011), pp. 82~100, 155~169, 186~189의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함.

## 4)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(실증분석)

### ● 이 연구는 인도의 경제개혁을 규제 철폐 및 완화와 무역자유화로 나누어 접근함.

-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규제 철폐 및 완화와 무역자유화로 나누어 각각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음.

- 실증분석에서는 학술적 기여도를 감안, 경제학의 거시-노동(macro-labor)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매칭함수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.
  - 매칭함수(matching function)는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Peter Diamond, Dale Mortensen, and Christopher Pissarides의 탐색-매칭 이론의 핵심이 되는 요소임.
  - 매칭함수는 일자리 결합과정(job matching process)에서 나타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거래비용(Transaction cost)에 따른 마찰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임.
- 이 연구는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(구직·구인 활동과 신규채용의 관계)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실업의 변화를 예측해 봄.
  - 무역자유화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개방도(openness)를 사용하였음.
  - 여기서 개방도는 수출과 수입의 합을 GDP로 나눈 값으로 다양한 교역 관련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충격 및 정책, 지리적 특성과 같은 교역과 무관한 정책 및 구조적 특성도 포함하는 변수임.
  -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(아래의 식 1)에서  $\ln M$ 은 종속변수로서 매월 신규채용 수 또는 일자리결합 수의 로그값이며  $\ln S$ 는 구직자수,  $\ln V$ 는 구인자 수의 로그값임.  $C$ 는 시간에 불변인 상수항이고 trend는 추세 변수이며  $\epsilon_t$ 는 오차항(error term)임.
  - 이 연구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며,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였음. 따라서 주요변수의 하첨자(subscript)는 월별을 의미하는 't'로 표기함.

$$\ln M_t = C + \alpha \ln S_t + \beta \ln V_t + \lambda \ln Openness_t + \delta trend + \epsilon_t \quad \text{식 (1)}$$

- 먼저 매칭함수의 주요 매개변수인  $\alpha$ 와  $\beta$ 의 추정값을 보면 각각 0.11과 0.77 정도를 나타내는데, 이는 규모수익불변(constant returns to scale) 가정 시 구직자의 신규채용에 대한 기여도가 약 11%, 구인자 또는 빈 일자리에 대한 기여도가 77% 정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- 이 결과는 인도 노동시장에서는 신규채용 시 구인자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줌.
- 개방도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, 전체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신규채용이 음(-)의 관계를 보이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지역별, 산업별, 직종별 등 세부분야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함.



- 앞서 언급한 인도 경제개혁 이후의 시기구분을 ① IMF 안정화 정책의 채택에 따른 외부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(1991년 말에서 1997년까지), ② 국내 기업들 및 산업계 각층의 요구가 반영된 점진적 개혁기(1998~2002년), ③ 인도경제의 고성장기(2003~08년), ④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(2009년 이후)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,
  - ‘② 국내 기업들 및 산업계 각층의 요구가 반영된 점진적 개혁기(1998~2002년)’에는 신규채용이 감소하였음.
  -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오히려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함.

### 3. 시사점

#### 1)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

- 인도 노동시장의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.
  - 주된 이유로는 특히 노동법 관련 주 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임.
  - 또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은 정규직 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  - 이러한 정규직 부문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초래하였고 2000년대 활황기의 고용 없는 성장을 일으켰음.
- 인도의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의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를 통해 고용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.
  - 따라서 정규직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도 정부의 과제이며 우리 정부도 같은 맥락의 접근이 필요할 것임.
-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세가 뚜렷하므로,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과장된 해석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음.

- 인도의 고학력 근로자 관련 잡미스매치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할 수 있음.
  - 이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우므로 양국 정부 모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학력자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## 2)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의 시사점

-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노조의 위상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, 2000년대 들어 인도 정부의 정책 또한 노조설립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.
  - 또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부분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도의 노조가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임.
- 하지만 인도에서의 잠재적 노사갈등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함.
  - 첫째,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인상의 요구는 높지만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가 낮아 임금 결정 협상 등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.
  - 둘째, 우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, 해고 등에 대한 잠재적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있음.
  - 셋째, 정규직 고용 시, 강제퇴사는 매우 까다로우므로 생길 문제가 있음.
  - 넷째, 인도 정규직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숙련고용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.
  - 다섯째, 지속적인 인도 노조의 위상약화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장, 특히 외국 기업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노사갈등은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.
  -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및 유지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임.
- 특히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과의 차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투자환경 요인임.
  -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기업 내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, 기업간의 연대와 주인도 상공회의소를 통한 장기적인 안목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- 우리 기업이 느끼는 인도의 투자환경 변화에서 가장 문제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노무관리이므로,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.
  - 노무관리 관련 우리 정부의 가능한 지원방안으로는 현지 진출 기업간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음.

- 또한 코트라 현지 지사와 주인도 상공회의소가 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.

### 3)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의 시사점

-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위시한 인도의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빈곤감소와 임금상승의 성과가 있었음.
  - 실업의 경우 직종별, 산업별 등에 따라 수혜자와 피해자는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경제개혁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.
  -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도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음.
  - 왜냐하면 무역자유화에 따라 빈곤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하였으며, 반면 실업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임.
-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함.
  - 무역자유화 전인 1988년부터 2012년 초반까지의 시계열을 이용한 매칭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와 신규채용이 음(-)의 관계를 보이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실업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음.
  - 하지만 인도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한적 무역자유화 시기인 1998~2002년 기간에는 오히려 신규채용이 감소함.
  -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신규채용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.
- 인도의 경우 개방도의 증가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, 교역의 확대가 노동시장 환경개선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음.
  - 따라서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.
  - 이와 관련해서 한·인도 양국은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 임하여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상호 개방을 가속화할 것이 요구됨.